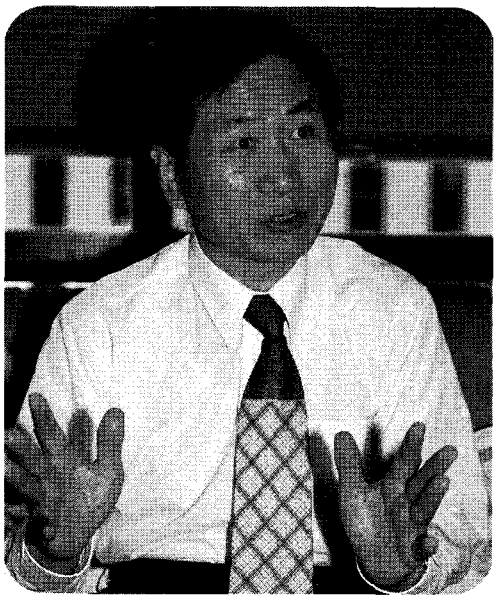
물류의 도(道)를 움직이는 물류인

컨테이너 표준화는 ULS의 핵심도구

서 병 륜 / 한국컨테이너풀(주) 초대 대표이사



컨테이너는 그동안 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온 화물 적재용기로 과거에는 물품을 그대로 적재했으나 최근에는 팔레트에 적재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팔레트 치수와의 정합성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조응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BOX CONTAINER POOL 회사가 설립됐다.

지난 11월 1일 창립한 한국컨테이너풀(주) 서병륜 초대 대표이사는 "CONTAINER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형 수송용 컨테이너가 아니라 소형운반용 BOX로서 기업의 화물을 표준화된 컨테이너(박스)에 담아 표준화된 팔레트위에 적재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유니트로드시스템의 주된 도구입니다. 이러한 컨테이너풀시스템은 지구환경보존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공해물질을 최소화하고 또 물류합리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제품을 신속, 안전하게 수·배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보편화되어 발전하고 있는 물류시스템입니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198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어 대량생산과 수출입 물동량 및 소비수요를 연결하는 물동량 흐름의 파이프로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은 정부차원의 도로, 철도, 항만, 물류단지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업차원의 자동창고, 배송

"컨테이너 표준화가 추진될 경우 팔레트의 적정 규격 사용, 포장단위 조정으로 이어져 빠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센터 등의 건설과 지게차, 운반하역장비 등의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괄성있는 재고에 관심이 적었고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대해 그는 "물류표준화의 문제입니다. 물류표준화는 개별 기업차원이 아닌 기업과 기업의 연결, 동종업계의 수평적 연결, 지역적 공동화, 기업간의 수직적 연계 체제 등 우리나라의 산업계 전체에 망라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비절감을 통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물류표준화란 소프트웨어부문(거래단위 표준화, 포장치수의 표준화, 물류용어의 통일 등)에서 물동량의 거래단위나 규격 또는 중량 등 포장단위를 표준화하며, 이들을 기본단위로 하는 팔레트 및 컨테이너를 규격화함으로써 물동량 흐름의 전과정을 유니트로드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컨테이너의 표준화가 추진될 경우 이는 다시 팔레트의 적정규격 사용, 포장단위의 조정으로 이어져 훨씬 빠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의 SCHOELLER사와 국내의 유수업체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한국컨테이너풀 주식회사는 앞으로 서병륜 대표이사가 밝힌 당위성에 근거해 컨테이너의 대여에 관한 사업, 컨테이너 시스템 추진에 관련된 하역 운반기기 및 그외 물류기기의 대여에 관한사업, 컨테이너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병륜 대표이사는 끝으로 "국내 컨테이너를 제작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T-11형 표준 팔레트의 조화여부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내 운송체제의 재편은 표준화된 팔레트, 컨테이너의 사용으로 복합일관운송체제가 구축될 수 있으며 이는 포장, 상품의 표준 규격화로 이어져 물류표준화가 업계 전반으로 효율을 제고하면서 트럭, 철도 등 연계운송을 강화해 낼 것"이라며 또한 "컨테이너 표준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수립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항상 물류지도(物流之道)를 염두에 두고 생활화하고 있는 서병륜 대표이사는 한국파렛트풀(주) 사장과 물류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많은 중책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저는 물류인이니까요!"라고 자신있게 답한다. ko

변준섭 기자